

고등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정선욱** · 김희진*** · 임희진****

초 록

본 연구는 어린 시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에 대해 어떻게 회고하며 현재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구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해 온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DB'의 패널 아동 중에서 27명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의미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삶에 미친 영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바람을 중심으로 귀납적 주제 분석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편안하고 가족·집 같은 곳으로 이해하였으며 센터로부터 에너지를 받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센터 내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있었으며 센터 이용으로 인한 낙인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도 있었으나, 일부 청소년들은 지역아동센터의 보호 덕분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선배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바람은 제대로 된 확실한 프로그램 제공, 좋은 선생님, 센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은 지원 등이었다. 연구 결과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개입 등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수행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작성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제1저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heui529@nypi.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제제기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에 보호된 보호대상아동 중심의 아동정책에서 지역사회의 결식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까지 아동복지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4년 법제화된(박선권, 2019), 아동·청소년을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돕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시간에,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안전 보호, 급식),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지도), 정서지원(상담 및 가족 지원), 문화서비스(동아리, 체험 활동, 공연) 등의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기관 및 인적 연계 등)를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0). 2018년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서 총 4,211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는 전국의 초등학교 6,064개의 69%에 달하는 규모(보건복지부, 2019)로,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6년 동안,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급식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의 아동보호 기능을 지원하고 특히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주로 수행해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이 밝혀졌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혹은 서비스 만족도)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학교 적응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이, 박미란, 2007; 이훈, 신혜중, 2008;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유수복, 김현주, 2011; 박정원, 정유희, 2012; 표갑수, 성낙현, 2012; 김연서, 노병일, 2019). 종단적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참여 만족도(초 5학년~중1 대상)가 문제행동(초기값), 학교적응(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이지언, 정익중, 2016)을 미쳤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학교적응(변화율)에 (-)로 나온 경우(초 4학년~중1 대상)에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여전히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이은수, 이수용, 홍세희, 2016). 한편,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의미를 살펴본 여러 질적 연구(최은희, 손영빈, 김현주, 2008; 한준상, 김경령, 2011; 정선옥, 김진숙, 2014; 선미정, 조항용, 2020)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견문을 넓히는 기회, 자존감 향상, 학습 몰입, 심리적 안정, 학교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로그램 유형, 센터 종사자(교사)의 태도, 종사자와 아동 간의 관계, 이용 아동 간의 관계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의미가 달리 구성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이용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아동이 고등학생(2학년)이 된 시점에서 평가한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와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을 다시금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용 중단을 다룬 양적 연구(김희진 외, 2018)와 질적 연구(정선옥, 김진숙, 2014)도 각각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닌 경험이 있는(현재는 이용 종결 혹은 계속 이용 모두 포함) 고등학교 2학년의 목소리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혹은 재해석된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어린 시절에 이용했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의 시간체계(chrono system)에서 볼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발달한다. 그 결과 동일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이해 또한 달라진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 혹은 중학교 시절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와 고등학교 2학년의 이해는 다를 것이다. 일관되고 지속된 이해가 있을 것이고 성장의 결과로 새롭게 드러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진학과 취업 선택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의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의미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린 시절에 다녔던 지역아동센터가 초기 성인기 진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는 어떻게 기억되는가?’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통적이면서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장기적 영향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아동과 청소년기의 시간은 발달과 관련된 변수(developmental variable)로 이들의 시간은 사회적 역량과 건강한 정서적 적응 등을 포함한 넓은 영역에서의 발달을 위한 자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직업적 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Larson & Verma, 1999).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및 그에 따른 발달성과는 사회계층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Hofferth, 2009; McNeal, 1995; Shanahan & Flaherty, 2001),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TV시청 및 미디어 사용, 독서 시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민자, 손문금, 2007; Larson & Verma, 1999; Posner & Vandell, 1999). 구체적으로 정은주(2014)의 연구에서도 가구 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방과 후 시간 및 여가 시간에 학원과 과외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로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은 컴퓨터 오락이나 TV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 스트레스에(정수정, 2017), 그리고 식이장애, 학습부진, 비행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Strasburger, Jordan & Donnerstein, 2010),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특히 취약한 배경의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시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시간 활용과 관련하여 1990년대 미국 내 지역 사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길거리, 운동장 같은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않으며 아동 혼자서는 방과 후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보내기 쉽고,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우 예술과 운동을 포함한 발달에 도움이 될 다양한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였다(Halpern, 1999). 국내에서도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환경적 변화를 포함한 유사한 맥락에서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구조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TV시청보다 예체능, 학업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써 무관심 대신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더 경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긍정적 발달(positive development)에 기여한다(Vandell et al., 2005). 또한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기술 증진을 도모하며(김민섭, 2004; 김현주, 장영란, 2008; Durlak, Weissberg & Pachan, 2010), 문제행동 및 비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화, 2004; 장봉우, 김재연, 2016; Lauer et al., 2006; Roffman, Pagano & Hirsch, 2001). 이외에도 지역사회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의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주의력 결핍과 이후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Becker et al., 2013), 방과 후 시간에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청소년의 인지, 심리, 사회적 적응 및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내의 여러 방과 후 사업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배경의 아동들을 우선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한 아동복지시설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능력 향상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등 심리적 적응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원, 정유희, 2012; 이훈, 신혜중, 2008). 또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복지감, 학교적응 유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김양이, 박미란, 2007; 김연서, 노병일, 2019; 유수복, 김현주, 2011), 센터 교사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갑수, 성낙현, 2012). 특히 임춘희 외의 연구(2010)는 6가지 영역의 서비스 만족도(친구 관계, 보호, 학습, 문화, 대인관계, 아동 참여 등의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를 3년 이상 장기간 이용한 아동(초등학교 4·5·6학년)의 우울과 불안, 공격성 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 이용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의미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시점에 특정 지역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센터이용 아동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2015년부터 공개됨에 따라 이후 여러 종단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종단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와 도움 정도 등은 이후 아동들의 개인발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고, 우울을 조절하여 공격성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윤미, 2017), 센터 이용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공통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지언, 정익중,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의 변화궤적(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3년에 걸친 이용시간의 변화궤적)에 따라, ‘높은 이용집단’, ‘낮은 이용집단’, ‘초기 고이용-급감소 이용집단’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발달결과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김동하, 2018)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의 학교 성적과 학교적응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성과 비행 행동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민희 외의 연구(2016)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학교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와 이용 아동에 관한 수많은 연구 가운데, 이용 아동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의미를 탐색한 질적 연구는 많지 않다. 센터 두 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아동 10명을 면접하고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이나 여행 등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얻지만, 한편으로는 종사자의 차별과 일관성 없는 지도방식과 꾸중 및 체벌 등의 부정적인 경험도 하였다(최은희 외, 2008).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청소년(중학교 2학년) 7명을 중심으로, 교사-청소년 간 관계, 또래 관계를 살펴본 한준상, 김경령의 연구(2011)에서는 상호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센터 종사자의 긍정적인 화법이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학습 몰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중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정선욱, 김진숙, 2014)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에게 즐겁고 쉴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의미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아동과의 관계가 시설 중단의 주요 사유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내에서의 여러 관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혼합연구를 수행한 선미정, 조항용 연구(2020)의 심층 면접 조사(중학교 1학년) 결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경청과 공감,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센터 이용 청소년(14세~16세의 중학생)의 희망직업을 탐색한 한 질적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이 없으며, 자신의 재능을 모를 뿐 아니라 낮은 학업 성적은 희망직업을 얻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유수복, 김현주, 2015), 아동·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적 및 질적 연구들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유익한 경험의 확장에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단일 시점에,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거나, 2차 자료 분석으로 일부 변인들과의 관계만을 파악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아동 중심의 연구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에 대해 어떻게 회고하며, 현재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지를 장기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다 체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지역아동센터를 경험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누적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향성 설정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1기 패널들로, 2011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 중학교 3학년 당시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한 2018년에 이들은 마지막 조사에 참여한 지 2년이 경과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이들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기 때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아동·청소년에게 장기적으로 미친 의미를 이해하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 청소년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우선 본인 휴대전화 정보가 남아 있어 전화접촉이 가능한 1기 패널 청소년 311명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성별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간, 지역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유형(일반, 기타, 학교 밖)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여 가능한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연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가구유형(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확인하고, 역시 다양한 가정 배경의 청소년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7명에 대해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27명 가운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17명이고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간헐적 방문, 급식 이용 등 비정기적 이용이 대부분)하는 청소년은 10명이다. 남학생 13명, 여학생 14명이며, 이용 기간(2016년 6월 기준)은 최대 10년 8개월에서 최소 3년 2개월이다.

표 1
연구 참여 청소년의 일반적 정보

번호	성별	이용기간	가구형태	현재 이용여부	고등학교 유형	지역
1	여자	4년 1개월	양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서울
2	남자	3년 11개월	한부모	다님	일반계고	서울
3	남자	5년 10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경기
4	남자	7년 4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경기
5	여자	4년 3개월	양부모	다님	일반계고	경기
6	남자	6년 4개월	양부모	안다님	일반계고	경기
7	남자	3년 7개월	양부모	다님	일반계고	경기
8	여자	5년 5개월	양부모	다님	일반계고	서울
9	남자	8년 8개월	양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서울
10	남자	10년 8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인천

번호	성별	이용기간	가구형태	현재 이용여부	고등학교 유형	지역
11	여자	3년 2개월	양부모	다님	일반계고	인천
12	여자	4년 5개월	양부모	다님	일반계고	경기
13	남자	9년 2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충남
14	여자	7년 3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인천
15	여자	8년 6개월	양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경기
16	여자	6년 4개월	한부모	다님	특성화고	인천
17	여자	3년 10개월	양부모	안다님	일반계고	강원
18	남자	6년 6개월	양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부산
19	여자	4년 4개월	양부모	다님	일반계고	경남
20	남자	8년	양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대전
21	여자	5년 7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경기
22	남자	4년	한부모	다님	특성화고	서울
23	여자	4년 4개월	양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서울
24	남자	7년 10개월	양부모	다님	특성화고	경기
25	남자	3년 11개월	양부모	안다님	일반계고	충남
26	여자	6년 8개월	한부모	안다님	일반계고	경기
27	여자	8년 10개월	한부모	안다님	특성화고	경기

개별 면접은 2018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연구진 1명과 전문 조사원 3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자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 청소년에 대한 개별 면접을 위한 질문지는 연구진이 1차로 개발한 후, 예비 면접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 면접 후, 연구진 논의를 거쳐 확정된 질문지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 지역아동센터의 영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1인당 면접 시간은 1시간 내 외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진이 소속된 기관에서 IRB 준비위원회(2019년, 정식 기관 IRB로 승격)의 심의를 받았다. 준비단계의 임시기구인 IRB 준비위원회이나, 연구진

전체의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와 연구(조사)계획서, 아동 및 보호자 동의서 등 일련의 필요 양식들을 제출, 심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면,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 연구참여자는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부모 등 양육자의 동의는 따로 구하지 않았다. 참여자에게는 약간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의 귀납적 주제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는 특정 질적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해석주의라는 질적연구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면서 질적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절충한 것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나 효과 등을 알고자 할 때,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실천 등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유용하다(김인숙, 2016). 본 연구는 어린 시절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고등학생이 된 청소년의 삶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방법이 적절하다.

귀납적 주제분석은 일반적 질적연구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자료를 해체하고 분류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비교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패턴과 주제를 찾는 방법(김인숙, 2016)이다. 이를 위해 녹취록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표시하면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개념화된 내용을 1차로 범주화한 후, 다시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분석에 관한 처음의 생각들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화가 다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범주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며, 또한 유사한 범주가 연결·통합되기도 하였다. 녹취록 읽기 - 개념화 - 범주화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범주들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2명의 질적 연구 전문가와 함께 동료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장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결과 해석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 자료 및 이를 분석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분석결과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의미

“지역아동센터는 ○○이다”에 대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위안과 에너지를 얻었는데 그 에너지에는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금전적인 후원 같은 것도 포함된다. 또한 “살면서 누구나 해봐야 할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 곳이 지역아동센터였다. 다른 청소년은 살면서 누구나 해봐야 할 것들을 가족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은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하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다면 누군가에는 자연스럽게 어찌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공백이 발생했을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한 시간이 이들의 과거를 추억할 만한 것으로, 즐거운 기억으로 채웠다.

힘들다고 가면 애들도 보고 쌤들하고 놀고 하루 얘기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중략) 에너지가 떨어질 때 가면 발랄하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ID 1)

못 해 본 거를 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중략) 그 때는 형편적으로 부모님이 보태주는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걸 해주니까**(ID 3)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추억의 앨범 70%는 거기(센터)에 있을 거예요. (중략) 거기서 대부분 경험을 했던 게 다 거기서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은 어디 놀러 가는게 서울 큰 엄마네, 삼촌네 집, 강원도, 청주, 전라남도 이렇게 딱 다섯 곳 밖에 없었어요. 그 다섯 곳도 다 아는 사람 지인 분이어서 거기 밖에 뺑뺑이 돌면서 놀아가지고 다른 거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방을 다니면서 (중략)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이게 풍부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ID 4)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가족 같다”, “편하다”, “가족보다 더 편한 곳” 등으로 묘사했다. 오랜 시간을 보내기면서 ‘제2의 가족’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할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구혜완, 권소일, 이수진, 2016).

또 다른 가족. 혈연은 아니지만 말로써 행동으로써 이어진 함께 체험을 하고 같이 가는 **우리들만의 가족**(ID 24)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편안하고 가족 같은 곳으로 이해하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에너지를 받고 추억할 만한 과거를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도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약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이기도 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센터는 감옥 같아요. 저녁 시간 맞춰서 밥 먹어야 하고 방학 때는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점심 때 늦으면 왜 늦었냐, 안 왔냐 하면서 혼을 내요. 밖에 나갈 때는 꼭 허락 받아야 하고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었어요.(ID 30)

저는 솔직하게 **약이자 독이다.** 저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잘 마무리했는데 아님 애들은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좀 많았고 선생님이 많이 혼냈다고 했잖아요. **괜히 엉뚱한 걸로 혼내고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게 끝낸 애들도 있고**(ID 26)

표 2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에 대한 개념화 및 범주화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힘들 때 금전적 지원 받음/결연 후원 지원받음/중학교 때 센터에서 장학금 받아 학원비 충당	경제적 지원 받음	위안과 활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충전소	집과 학교 사이에서 성장을
힘들 때 찾으려면 힘이 생김/삶의 원동력/꿈 찾기 지원받음/부모님 이혼 후 어려울 때마다 센터를 찾음	심리적 위안을 얻음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함/못 해 본 것을 하게 해준 곳/부모님이 할 일을 보태줌/돈 없이도 캠프 다니고 멘토링 과외 할 수 있음/비용 부담이 적은 활동/무료로 많이 놀러 다님	“살면서 해봐야 될 것을 해본 곳”	채워진 추억 앨범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센터는 추억임/어린 시절 대부분의 경험이 센터에서 나옴/초등 추억의 70%는 센터에서 채워짐/제일 의미 있는 학창시절/첫 스키, 첫 교복/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준 곳/추억의 놀이터/추억할만한 것을 만들어줌	추억의 장소		
일상을 같이 함/안전하고 친구가 많아 편한 곳/발길이 저절로 닿음/센터 이용이 습관화 되었음/저녁을 먹을 수 있음	밥 먹고 놀고 공부하고 일상을 같이 함	우리들만의 가족	일으킨 성장관
편안함/친숙함/집 같은 느낌/집보다 편한 센터/집보다 편할 때가 있고 제일 의지가 되는 곳/두 번째 집/혈연은 아니지만, 말로써 행동으로써 체험을 하고 같이 가는 우리들만의 가족/같이 뭉쳐있어 좋은 곳	편안하고 친숙함		
시간 낭비하면서 시간 낭비 아닌 곳/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곳	그저 그런 곳	약이자 독	
센터가 약이 되는 아이, 독이 되는 아이/혜택을 많이 받는 아이, 센터 내에서 소외된 아이/감옥 같은 곳	같은 공간 다른 경험		

2. 지역아동센터로 인한 변화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혹은 다닌 결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지역아동센터의 보호 덕분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은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비행화’ 주제가 도출되었다. 최은희 외(2008)에서는 유사한 빈곤 문화를 가진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기에 교육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그 결과 아동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들의 돈을 훔치고 아무 이유 없이 따돌리고 싸우는 등의 다양한 비행

의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동하(2018)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용이 공격성, 비행 행동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지언과 정익중(2016)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의 지역아동센터 참여만족도는 초등학교 5학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당시의 지역아동센터 참여만족도는 중학교 1학년생 때 보이는 문제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덕분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날라리가 되지 않았고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비행화’와는 매우 다른 결과이며, 지역아동센터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초등학교 시기에만 한정되어 나타났던 결과와도 다른 것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했음을 드러낸다.

중2, 중3 한참 반항하고 그럴 때 잡아준 것도 있었고(ID 1)

진짜 학교 끝나고 할 것도 없고 공부도 혼자서 제가 못 하거든요. 공부도 더 안 했을 거 같고. **뭔가 안 좋은 길로 빠졌을 것 같아요.**(ID 14)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곳(ID 20)

그냥 와서 지역아동센터 와 가지고 밥 먹고 거기 있어서. 그 시간대가 저녁이잖아요. **나쁜 길로 안 갈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느낌**(ID 22)

두 번째 변화는 여러 활동을 스스로 끝까지 완수해낸 경험 속에서 얻어진 자신감이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스스로가 대견하고 신기할 정도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주도적으로 해낸 활동을 통해 성공을 경험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과 경험이 청소년의 자신감, 독립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의 믿음,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회, 적절한 지원과 격려가 중요했다.

여기 다니고 나서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 보라고 끝까지 저를 얹혀 놓고 하니까 **완성하니까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끝을 보죠. (중략) **끈기를 배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알바를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끝까지 할지. 3, 4개월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알바 그만뒀냐고 해서 아니다 하니까 웬일로 끝까지 하나. 다 의아한 표정 짓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ID 3)

세 번째 변화는 성격이 활발해진 것이다. 늘 바쁜 부모님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집순이에서 벗어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이 웃게 되었다. 늘 혼자였던 이들을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곳이 지역아동센터였다. 우울감에 미친 영향은 임춘희 외(2010), 황윤미(2017) 연구에서도 발견된 결과이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셔서 가지고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략) 집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중략)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중략)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거 같고**. (중략) **여기 와서 바뀐 것 같아요. 더 활발하고 웃음도 많고**(ID 5)

집순이가 되었을 거예요. 핸드폰 하고 TV 보고 자고 이런 생활 반복(ID 8)

제가 엄청 소심했었는데 센터 다니면서 좀 **더 활발해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우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ID 11)

센터를 안 다니고 집에 어릴 때부터 혼자 있으면 **우울하겠죠**.(ID 24)

네 번째 변화는 긍정적 또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친구와 관련된 성과는 최은희 외(2008)과 정선옥과 김진숙(2014)에도 등장한다. 친구가 많아지고 친구와 잘 어울려 자내게 된 점 등이 공통적인 성과이다. 서로 닮은 구석이 서로를 가깝게 끌어주었고 이것은 우울감의 감소, 활발한 성격으로의 변화 등을 낳았다.

제가 소심했다고 했잖아요.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중략) **진짜 평생 친구**. 스무살이 되어도 서른 살 되어도 결혼하고도 계속 만날거예요.(ID 11)

센터 친구들은 모르는 게 없어서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ID 12)

다섯 번째 변화는 배움을 통한 전진과 성장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중 일부는 실제로 학업 성적이 오르기도 했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학교 성적과 관련된 성과이다. 학업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또래와 비슷하게 배워본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여겼다.

공부, 여기서 할 때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원래 공부 안하면 50대였거든요. 공부하면 80대쯤. (중략) 학교에서는 노는 게 일쑤였고(ID 4)

(센터 중단 후) 공부를 안하게 돼요. 숙제 같은 거 내주고 대학생 붙여줘서 그때 하게 되는데 없으니까. (중략) 여기를 안 다녔으면 **공부 되게 못했을 것 같아요**. (ID 9)

못 해 본 거를 해 보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사는데 좋다고**(ID 3)

다른 것들 체험 많이 하고 그러면 폭이 많이 넓어지고요. 원래 미용에 관심 있었는데 그냥 **다양한 활동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관심이 생기고 그랬어요**. (ID 17)

연구참여자가 말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인한 변화, 그 마지막은 진로 선택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체험과 배움이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아동센터의 수많은 체험 기회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진로 중심으로 나눈 것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진로에 관해 물어본 것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의 진로 관련 이야기는 다양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진로 선택에 미친 영향은 중고등학생 위주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리고 진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제공한 센터 선생님들의 역할에서 두드러졌다.

딱 수업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상담받거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진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거 같아요. 제 진로에 대해서. (중략) **여기 와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ID 12)

선생님이랑 저랑 생각하는게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좀 그러세요. (중략) 공부방에서 자체가 애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저희 공부방은 초등학교 위주로서 아닌 **중고등학교 위주로 있어서 진로에 대해서 잡아주시는 것도**(ID 16)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진로를 홀로 찾아가는 청소년에게 일정 정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로 관련 욕구에는 채워지지 않은 빈 구석도 많았다. 진로지도가 지역아동센터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진로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할 몫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업계군(현, 특성화고 계열)의 경우, 빈곤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곤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발달 수준이 퇴화하였다(노법래, 2013). 이것은 경제적 불안정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성화 진학률이 높고 빈곤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진로발달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 이들의 진로지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

특성화고를 갔는데 조립하는거 좋아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달라서**(ID 3)

일반 전형은 성적으로 가는 거고 미래 전형은 그렇게 가는 건데 거기 홍보 들어왔는데 **아는 언니인 거예요.**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중략) **재미 있을 거 같고** 돈도 만지고 그래서 결심해서 갔는데. (중략) 버스도 안 가고 산골짜기에 (학교가) 있고 막상 가니까 은행에 갈 수 있는 거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이고 저는 **그게 너무 배신 당한 거 같고.** 그 언니는 자기가 공부를 잘 하니까 그런건데 저는 잘 하는게 아니니까(ID 1)

지금 무섭고, 저는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계속 어른들 보호 하에 있으니까 사회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인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느 쪽으로 진로를 확실히 잡는게 좋을지(ID 16)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걸 할 수 있을까 싶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ID 17)

표 3

‘지역아동센터로 인한 변화’에 대한 개념화 및 범주화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반항할 때 잡아줌/중2·3학년에 한참 반항할 때 잡아줌	바로 잡아줌	비행으로부터 보호받음	“여기를 다녀서 다행이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센터 덕분에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음/센터 덕분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음/센터 다니지 않았으면 날라리가 됐을 것/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곳/나쁜 길로 안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느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면 된다는 경험을 함/자신감도 많아짐	성공의 경험	자신감	
예전에는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제는 끝까지 해냄/처음과 끝을 주도적으로 해내면서 끈기를 배움/오랫동안 끝까지 해내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함	끈기를 배움		
혼자 집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했음/센터 와서 밥 챙겨먹고 놀고 공부할 수 있음/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 편함/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모로 좋음/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거 같고/어려운 시기 인식처	혼자가 아님	활발해짐	
집 같은 편안함에 성격이 더 밝아짐/성격이 활발해짐/소심한 성격이 바뀜/무표정이 웃는 얼굴로/우울했을 것임	성격이 밝아짐		
친구가 생김/집 순이로 살지 않게 됨/평생 친구를 만남/친구를 많이 사귀/(센터 다니지 않았으면) 친구도 거의 못보고 안 좋았을 듯/친화력이 높아짐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 받음	친구를 사귀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 큰 곳/배우는 것이 많음/센터 덕분에 배운 것이 많음/클라리넷 악기를 잘 다룸/다양한 것을 배움/센터 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됨/센터 활동이 취미, 잘하는 것이 됨/우물 안 개구리에서 많이 넓어짐	배움의 즐거움	배움을 통한 진진	
성적이 오름/유일하게 공부하는 곳이 센터/영어 성적이 오름/학원 다닐 돈도 없고 학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센터를 쫓다님/중단 후 공부를 안하게 됨/(센터 다니니 않았으면) 공부를 더 못했을 것 같음/센터를 가지 않으면 공부보다 더 뒤쳐짐/센터를 가야 그나마 공부를 함	성적이 오름		
센터에서 접한 역사 수업이 장래희망 결정에 영향을 줌/센터에서 교육봉사하면서 교사 소질을 발견함/센터 선생님이 진로지도에 도움을 많이 줌/멘토링 프로그램이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됨/센터에서 진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함/자연스럽게 진로 이야기를 나눔/다양한 체험들이 진로탐색에 도움을 줌/직업체험이 도움이 되었음/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친구들한테는 센터가 도움을 줌/진로에 대한 구체적 도움보다는 이야기를 들어 줌/센터가 꿈을 갖게 함/중고등생 위주 센터는 진로에 대해 잡아주는 것이 있음/월드비전의 꿈 찾기 프로그램이 진로탐색과 결정에 도움을 줌/(센터에 다니니 않았으면) 아무 것도 안했을 것 같음/센터 덕분에 하고 싶은 것이 많아졌음/하고 싶은 것을 강화시킴	진로 선택에 도움 받음		

3. 달라졌으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모습

지역아동센터 이용 선배로서 연구참여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범주화한, 달라졌으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모습은 ‘제대로 된 확실한 프로그램’, ‘좋은 선생님’, ‘센

터의 물리적 환경 개선’, ‘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이다.

첫째,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것이든 제대로 확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예산이 많아져서 프로그램 기회가 확대되고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진행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 동생들도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공부(학습), 여가, 놀이, 체험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선호가 발견(정선욱, 김진숙, 2014; 선미정, 조항용, 2020)되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연구참여자들은 선호나 만족도를 넘어 프로그램 운영의 포괄적 원칙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 지속성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이왕에 배울 거 제대로 배우는게 낫죠. 서둘러 배우면 나중에 어디 가서 자기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거고 확실하게 가르쳐줄 수도 있는거고 나중에 꿈을 가질 수도 있는거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어차피 하면 돈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더 투자해서 조금만 더 해서 확실하게 그걸 애들한테 깨우쳐주면** 개네들도 나중에 얻을 게 있지 않을까(ID 1)

두 번째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을 잘 다루는 선생님,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선생님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돌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수가 많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사실, 종사자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것(구혜완 외, 2016; 선미정, 조항용, 2020)으로, 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깐 선생님이 좀 더 한 분이라도 기 쉰 선생님, 어떻게 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ID 4)

평등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바뀌어야(ID 27)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바람, 세 번째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이다. 아이들은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센터에 대한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시설이 바뀌면 외부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시설의 구조적 환경(아동 친화적인 공간, 시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은 임정기 외(2015)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설 환경의 변화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 편견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너무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어야 되지 않을까. (중략) (바뀌면) 그런데 아마 좋아질거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한테 사람들마다 약간 그런게 있지 않을까요. **편견, 복지 시설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도 좋아지지 않을까** (ID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마지막 바람은 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범주화하였다. 보건복지부(2020)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고등학생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초등학생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하여, 중학교 입학 이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생각에 결석하거나 친구들과 놀다가 지역아동센터에 늦게 가는 경우, 출결 문제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갈등을 겪는데, 이러한 출결 관리에 대한 부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센터이용 종결로 이어지기도 한다.

약간 다니기 민망했어요. 컸는데 애들 다니는데 같이 있기 좀. 애들 다 크면서 자기 친구들끼리 노느라 여기 안 오고 공부하거나(ID 13)

중학생 때까지 밖에 못 간다 했어요. 거기 다니면 학교 끝나고 맨날 가야 되고 **출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공부 부담도 클 거 같고 **그냥 뭔가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ID 17)

때로는 오래 다닌 지역아동센터가 정이 들어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프로그램 등이 초등학생 대상이라 고등학생인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만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아

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커가면서 이용 지속과 종결 사이에서 고민한다. 계속 다니고 싶은데, 초등학생 중심 센터이기 때문에 더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사자로부터 들으면 아쉽고, 지역아동센터를 종결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두려운 청소년도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만을 오래 다녔던 청소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밖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의 전환기에 느꼈을, 그리고 이제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이 느끼는 감정을 다루고 중요한 선택에서 이들을 품고 지원하는 방안,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사정으로 고등학생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용 종결 후 생활에 대한 안내(지원) 및 종결 관련 두려움 등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다루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나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되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중략) **학교 끝나고 무조건 센터로 갔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디 같지.** (중략) **아쉬웠어요.** (센터) 졸업 때 아쉽죠.(ID 3)

다른 데 가면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이겨내는 것도 힘들고(ID 5)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진로·진학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그러하겠지만 공부와 진로지도에 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 부분도 분명 있지만, 앞에서 기술한 진로지도의 공백도 발견된다. 공부가 진로 및 진학 선택에 걸림돌로 작용함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 공부를 더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 고등학생에게 맞는 진로 체험활동이 부족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너무 중학교 때 여기만 맨날 와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따로 여기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었고** 아예 학원을 다녔으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중략) 멘토링하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 하니까 **영여랑 수학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맨날 맨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ID 19)

저희가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저희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거든요. 중학교 까지만 해도 다른 고등학생 멘토 붙여주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멘토도 못 붙여주시고 초등부 위주라는 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중략) 저희는 프로그램 참여도 안하고 멘토도 없고 각자 자율학습 하고 오는(ID 14)

저는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계속 어른들 보호 하에 있으니까 사회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인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모르겠고 어느 쪽으로 진로를 확실히 잡는 게 좋은지(ID 16)

표 4

‘달라졌으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모습’에 대한 개념화 및 범주화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공부를 더 세게 가르쳤으면 함/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중학교 때 학업적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움/공부 지원 시간이 부족했음/꿈찾기 프로그램 개설 희망함/취업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열렸으면 함/진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길 바람/진로미 결정에 대한 공감과 격려, 조언 바람/교과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진로 정보를 충분히 듣지 못해 아쉬움/센터에 진로관련 활동 거의 없음/센터 직업 체험은 자신의 꿈과 관련이 적어 센터 영향이 별로 없음	공부/진로에 대한 아쉬움	제대로 확실한, 그리고 꾸준한 프로그램을 바람	지역아동센터가 메워온 공백과 앞으로 메워야 할 공백
제대로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함/예산 문제로 프로그램이 중단, 변경되어 후배들에게 제공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아쉬움/체험, 외식이 더 많아지면 좋겠음/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함	제대로 되고 꾸준하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함		
초등학생을 막 대하는 것 문제/애들을 잘 케어하는 기 썬 선생님이 필요함/교회 다니기 노래부르기 강요받음/차별하지 않는 센터 희망/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바뀌어야 함	강요, 차별하는 선생님이 문제	좋은 선생님이 많아지길 바람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선생님이 적어 학생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	돌볼 선생님이 부족		
강요하는 센터 선생님과 맞지 않아 그만둬/센터 다니고 안다니는 데는 선생님의 영향이 큼/센터장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듯해서 그만둬	선생님이 센터 이용/중단에 결정적임		
시설이 바뀌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임	시설 환경이 센터 이미지에 영향을 줌	센터 환경 개선을 통해 센터 이미지가 좋아지길 원함	
공간이 더 넓어졌으면 함/센터 공간 확대 필요함/교회랑 공간을 같이 쓰면서 공간이 작아서 불편함/	공간 확대		
학년별 별도의 공간 분리 필요/초중 공간 분리/마당이 사라져 밖에서 놀 수 없는 것이 아쉬움	학년별 공간 분리		
고등학생이 되는 게 싫을 정도로 센터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쉬웠음/학교 끝나고 무조건 센터로 갔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디 갈지/센터를 끊고 새로운 곳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정도 많이 들고 애들이 못 빠지게 해서 중단 시기를 못 정하고 있음/ 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말함	맞닥뜨린 종결이 아쉬움		
고등학생이 다니는 것도 창피함/선택의 기로에서 노는 선택을 함/중학생이 되면서 센터 다니기 민망함/센터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곳/친구들도 많이 그만둬/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거나 공부하는 경우 많아 센터 이용 중단함/출석에 대한 부담/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음/맨날 오니까 놀지도 못함/센터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음/초등학교 때는 끝만 경험하지만 중학교 때는 처음과 끝을 다 경험함/주도성에서 차이 있음/초등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는 공부 중심으로 센터 일과가 진행됨/초등학교 때는 놀기만 함/절없고 어린 초중 때는 센터의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과 다름	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주제
관리가 필요함/고등학생이 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됨/초등과 중등 때의 다양한 체험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지만, 고등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음/중학교 때는 센터 출결이 부담되었음/센터 출결 때문에 중학교 수업 마치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음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고등학교 하교 시간이 늦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측면도 있음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바람		

V.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닌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무엇이 변화했다고 인식하는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다녔던 시절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되돌아본 지역아동센터는 ‘집과 학교 사이에서 성장을 일으킨 성장관’ 역할을 하였고 “여기를 다녀서 다행이다”라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비행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 곳이었다. 그러기에 클수록 느껴지는 외부의 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공간”이다.

‘집과 학교 사이에서 성장을 일으킨 성장관’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범주들 가운데, “살면서 해 봐야 할 것을 해 본 곳”이라는 청소년의 이야기처럼, ‘보통 청소년의 삶’을 만들어준 곳이 지역아동센터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배움과 문화 서비스를 통한 재밌고 건문이 넓어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한다(최은희 외, 2008; 김용희, 2009; 정선옥, 김진숙, 2014).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의 이야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체험 및 문화 활동은 재미, 즐거움과 활력을 넘어, 주변의 보통 아동·청소년과 열추 비슷한 삶을 만들어주었음이 드러났다. 부모가 바

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등의 여러 이유로 자칫 경험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기억할만한 추억이 없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이 추억의 공백을 메워주었다. ‘첫’ 번째 경험이 지역아동센터에서였다는 청소년의 이야기도 이와 관련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쳤던 여러 성과 가운데 기존 연구와 다른 주제는 “여기를 다녀서 다행이다”라는 청소년의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최은희 외, 2008)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김동하, 2018), 혹은 이와 달리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초기 비행(초등학교 5학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언, 정익중, 201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고등학교 2학년 연구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공부를 더 못했을 것이고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 나쁜 길로 빠졌을 것이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심지어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ID 10번(이용종결)의 경우에도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처럼 나쁜 사람 말고 착한 애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물 흐리지 말고”라는 말 속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인정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의 보호 공백을 메워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이 된 청소년에게 지역아동센터는 추억의 공백, 보호의 공백을 메워주는 곳이었다. 그러기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지역아동센터는 “고아나 돈 없는 애들이 가는 곳”으로 낙인찍혀 있으며, 이용 청소년은 이용 사실을 숨기거나 학원이라고 둘러댄다. 그래서 세상에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바라는 공간이 지역아동센터이다.

한편, 이러한 추억의 공백, 보호의 공백이 메워지는 정도는 센터마다, 아동·청소년마다 차이가 있었다. 지역아동센터가 “약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다”라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는 청소년의 경험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의미, 영향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추억의 공백, 보호의 공백이 센터 간 편차 없이, 아동·청소년에 따른 차이 없이, 메워지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갖는 기대(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달라졌으면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첫 번째 바람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후배들이

명목상의 프로그램, 그냥 한번 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 제대로 된, 확실한, 그리고 꾸준히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예산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후배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선배로서 안타까웠다.

연구참여자들은 선생님, 센터 내 친구, 센터 내 동생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제 2의 가족'을 경험하였다. 그 중, '좋은 선생님'에 대한 바람이 컸다. 커서 보니, '좋은 선생님'이 많은 곳이 좋은 지역아동센터이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가족도 아닌데 아낌없이 품어주고 걱정해주는 선생님, 진로에 대해 질문해주고 궁금해하는 선생님,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주는 선생님의 존재가 아이들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좋은 선생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좋은 선생님'을 더 많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세 번째 개선방안은 어렸을 때는 창피하게만 여겼던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면 외부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바람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규칙보다는 자유(자율성)를 원하며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경험과 프로그램을 희망한다. 진로에 관한 생각의 경우에도 중학교 때만 해도, 어른들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진로였는데, 막상 고2가 되고 보니 취업이 잘되는 것이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 혹은 그보다 한발 앞서 관심과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의 이야기를 통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및 보호와 지원의 공백이 고르게 메워지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 뿐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처우) 개선과 '좋은 선생님'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는 노력(교육 및 수퍼비전)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후적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적,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전환기 혹은 이행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진로 지도 공백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일정 정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어디에도 전환기 혹은 이행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진로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인상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원활한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으나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관련 민관(民官)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정책적·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년 전 면접 자료를 재분석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용과 시차가 있을 수 있고, 회고적인 조사방식에 따라 청소년들이 과거 이동기 때부터의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기억에 다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성인기까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이들이 청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과거 이용 경험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초등학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벗어나 향후 중학생 이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혜완, 권소일, 이수진 (2016). 지역아동센터 종사들의 빈곤아동 개입 경험에 대한 연구: 엄마의 마음과 촉진자의 마음 사이의 외줄타기. **한국가족복지학**, 21(2), 251-276.
- 김동하 (2018).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의 종단적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9(2), 159-180. doi:10.16999/kasws.2018.49.2.159
- 김민섭 (2004). 아동의 방과 후 체육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6), 105-113.
- 김양이, 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89.
- 김연서, 노병일 (201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서비스만족도와 심리적 복지감 사이의 관계.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577-586. doi:10.35873/ajmahs.2019.9.8.051
- 김용희 (2009).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파주: 집문당.
- 김현주, 장영란 (2008). 청소년지도의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6(4), 17-29.
- 김희진, 황진구, 임희진, 정선욱, 정윤미 (2018). **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서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김희화 (2004).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73-92.
- 노법래 (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 연구: 경제적 불안정과 여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0, 171-193.
- 박민자, 손문금 (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 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박선권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입법조사처.
- 박정원, 정유희 (201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

- 처행동 및 건강상태. **스트레스 研究**, 20(4), 309-320.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1003&CONT_SEQ=347247&FILE_SEQ=258882. 2020년 4월 2일 인출.
- 선미정, 조항용 (2020).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와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혼합연구. **청소년문화포럼**, 61, 6-35. doi:10.17854/ffyc.2020.01.61.5
- 유수복, 김현주 (2011). 학교적응 유연성 유형에 따른 이용 아동의 세분화(동질적) 집단 특성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4), 109-130. doi:10.20970/kasw.2011.63.4.005
- 유수복, 김현주 (20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장래희망 설계경험에 대한 탐색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4), 287-308. doi:10.19034/KAYW.2015.17.4.13
- 이은수, 이수용, 홍세희 (2016).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59-85. doi:10.17997/SWRV.50.1.3
- 이지연, 정익중 (2016).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발달궤적 예측요인. **한국 아동복지학**, 54, 173-197.
- 이훈, 신혜종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흥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3-188.
- 임정기, 박현선, 정익중 (2015).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인식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67(2), 285-310. doi:10.20970/kasw.2015.67.2.012
-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71-98.
- 장봉우, 김재연 (2016). 초등학교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문제행동의 구조적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347-353. doi:10.14400/JDC.2016.14.7.347
- 정민희, 홍성원, 유서구 (201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모형-직간접 효과의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9, 99-127.

- doi:10.15300/jcw.2016.59.4.99
- 정선욱, 김진숙 (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센터이용 경험 지속과 중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9, 115-141. doi:10.17854/ffyc.2014.07.39.115
- 정수정 (2017). **아동생활시간 잠재계층유형의 영향요인과 발달결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주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 기초분석보고서 I: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은희, 손영빈, 김현주 (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2), 135-159.
- 표갑수, 성낙현 (2012). 농촌지역 빈곤아동의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10(2), 41-63.
- 한준상, 김경령 (2011).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관계맺음을 통한 배움 연구. **청소년학 연구**, 18(4), 1-28.
- 황윤미 (2017). 아동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의 조절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 14(1), 51- 70.
- Becker, S., Paula, F., Luebbe, A., Stoppelbein, L., & Greening, L. (2013). Friendship intimacy exchange buffers the relation between ADHD symptoms and later social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 Behavioral Assessment*, 35(2), 142-152. doi:10.1007/s10862-012-9334-1
- Durlak, J. A., Weissberg, R. P., &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294-309. doi:10.1007/s10464-010-9300-6
- Halpern, R. (1999). After-school programs for low-income children: Promise and challenges. *Future of Children*, 9(2), 81-95. doi:10.2307/1602708
- Hofferth, S. L. (2009). Changes in American children's time - 1997 to 2003.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6(1), 26-47. doi:10.13085/eijtur.6.1.26-47

- Larson, R. W.,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3-736. doi:10.1037/0033-2909.125.6.701
- Lauer, P. A., Akiba, M., Wilkerson, S. B., Apthorp, H. S., Snow, D., & Martin-Green, M. (2006). Out-of school time programs: A meta-analysis of effects for at-risk studen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6*, 275-313. doi:10.3102/00346543076002275
- McNeal, R. B., Jr. (1995).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dropouts. *Sociology of Education*, *68*, 62-81. doi:10.2307/2112764
- Posner, J. K., & Vandell, D. L. (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9. doi:10.1037/0012-1649.35.3.868
- Roffman, J. G., Pagano, M. E., & Hirsch, B. J. (2001). Youth Functioning and experiences in inner-city after-school programs among age, gender, and race group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0*(1), 85-100.
- Shanahan, M. J., & Flaherty, B. P. (2001).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385-401. doi:10.1111/1467-8624.00285
- Strasburger, V. C., Jordan, A. B., & Donnerstein, E. (2010). Health effects of media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25*(4), 756-767.
- Vandell, D. L., Shernoff, D. J., Pierce, K. M., Dadisman, K., & Brown, B. B. (2005). Activities, engagement, and emotion in after-school programs (and elsewher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05*, 121-129. doi:10.1002/yd.111

ABSTRACT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s of community child centers

Jung, Sun Wook* · Kim, Heuijin** · Lim, Heejin**

This study explored how high school students looked back upon their childhood experiences at community child centers, and how they perceived the impact of these experiences upon their liv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7 youths selected from the “Community Child Center Children Panel Survey Database.” The database has been developed by the Community Child Center Headquarters and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ince 2011. Data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with a focus on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ir experiences at community child centers, the impact of these experiences upon their lives, and their expectations of such center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dolescents perceived community child centers as a comfortable, home-like place and that they derived energy, and many happy memories from such centers. Some participa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t these centers, and felt stigmatized by using the centers. Others recalled that the centers protected them from the risk of juvenile delinquency. The youths surveyed here suggested that centers ought to develop more effective programs, employ approachable and qualified teachers, enhance centers' physical environment, and provide more support for adolescents. These findings showed that community child centers need to provide more programs tailored to the developmental needs of adolescents, in addition to providing after-school care programs.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community child center, Community Child Center Children Panel Survey,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2020. 5. 20, 심사일: 2020. 8. 4, 심사완료일: 2020. 8. 13

* Duksung Women's Universit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